



자연과 인간의 합작품, 흙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책

책만큼 자연적인 사물도 없다. 학교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과서,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직장인들의 손에 들린 신간, 도서관 서가를 빼곡히 채우고 독자를 기다리는 책까지 그 근본은 모두 '나무'다. 여기에 최초의 책이 점토판, 즉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까지 덧붙이면 책은 곧 인간과 자연을 만나게 하는 가장 일상적인 사물이 된다.

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'보충대리공간' 스톤 앤 워터에서 열린 안순영 도예전 '흙으로 만든 책'에서는 경상남도 산청 지방의 흙으로 만든 책 20여 점이 전시됐다. 흙으로 빚은 후 소금 유약처리를 한 책은 굳어 있어 넘길 수는 없다. 그렇지만 아이들은 투박해서 꾸밈이 없는 흙빛 책을 보면서 펼쳐놓은 페이지의 앞뒷장에

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지 상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넘길 수 있는 책이 주는 감동 이상을 가져갔다. 도예작가 안순영 씨는 흙으로 만든 책에 상형문자부터 그림, 인터넷 주소, 팝송 가사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담았다고 설명하면서 "이 모든 게 흙을 만지면서의 상념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"이라고 말했다.

"그날 그날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있고,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도 있습니다. 이 책의 앞뒤에 무슨 내용들이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메모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기분이 좋더군요"

실제로, 작품에는 작가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부터 해석이 어려운 추상그림까지 사람의 숨결과 다름없는 이야기들이 담겨

있었다.

안씨는 "진부렁에 있을 때 전선이 끊어져서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안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어쩔 수 없이 책을 보게 되었죠. 그 덕분에 이런 작품을 생각해 낸 겁니다. 통신시설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런 작품을 구상도 못했을 겁니다"라며 당시 촛불을 밝히고 읽었던 책 이야기를 풀어놓았다. 완벽한 독서의 계절 만추시절에 마련된 그의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인 '책'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전시로 평가받았다. 작품들 중 2점은 순천 '기적의 도서관'에 기증됐다. **☞**

취재 김청연 기자 · 사진 박신우 기자